


계속 진행되는 백내장은 결국 수술을 받게된다. 그래서 백내장이란 적절한 시기에 수술하게 되는데 대개 교정시력이 0.3~0.4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든지 모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을 때 수술을 받게 된다.

기 위해서는 뒷주머니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 반면 남은 주머니가 다시 혼탁해지는 수도 있다는 결점도 있다.

한편 낭외적출법의 일종으로 수정체를 초음파를 이용해서 눈 속에서 액화(液化)시킨 다음 기계를 통해서 빨아내는 초음파 백내장 액화흡인법이 1982년 필자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이것이 백내장 수술의 주류가 되었다. 이것은 눈을 자르는 길이를 가능한 적게 할 목적으로 고안됐으며 보통 눈을 10~12mm 정도 자를 것을 3~4mm 정도만 잘라도 가능하다.

즉 지름 2mm 정도의 금속 침을 초음파에너지로 매초당 약 4만회의 스피드로 진동시켜 단단한 수정체를 부드럽게 부수고, 액체처럼 액화시키면서 금속 침을 통해서 눈 밖으로 빨아낸다. 이 방법은 다른 수술방법에 비해 수술의 상처가 아주 작으므로 수술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수술후 생기는 난시도 적어서 성적이 좋다.

백내장수술이란 수정체를 빼낸 다음 그 자리에 수정체 도수에 맞게 만들어진 “메틸메타크리레이트” 또는 “실리콘”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술후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있고 또 현재까지 관찰해 본 결과 눈 속에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상 백내장의 치료 특히 수술방법에 대해서 썼는데 수술기술과 기계, 재료 등의 발달로 수술로 좋은 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 백내장이 되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백내장 치료



李相旭

(서울강남병원 안센터 소장)

### 통증없는 수술 ... 회복 빨라

눈의 수술이라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우선 걱정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만 마취하는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통증은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수술은 수술현미경을 사용해서 크게 눈을 확대해서 보며 정확하고 안전하게 한다. 백내장이란 카메라로 치면 렌즈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유빛으로 흐려져서 잘 안보이게 되는 병이다.

따라서 이 때는 우유빛 렌즈를 떼어내고 대신 맑은 렌즈로 바꾸어 끼워주면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렌즈를 눈 밖으로 떼어내는데는 크게 나누어 낭내적출(囊內摘出)과 낭외적출(囊外摘出) 두가지 방법이 있다. 수정체를 싸고있는 주머니를 포함하여 수정체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 낭내적출법이고, 뒷부분의 주머니는 남기고 수정체의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낭외적출법이다.

근자에는 대부분의 백내장수술은 낭외적출을 한다. 이 방법의 이점은 수정체적출후 잘 보기 위해서 인공수정체를 끼워주는데 이것을 받쳐주

**백**내장의 치료에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다.

물론 약으로만 치유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으므로 옛부터 여러 가지 약제가 사용되어 왔으나 백내장이란 경과가 길고 진행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과연 어떤 약이 백내장진행에 억제효과가 있느냐 하는 판정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은 초기에는 일단 약물요법을 시도해 보며 현재로서는 초기에는 다소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복용약, 점안약 등이 사용되지만 이 약만 사용하면 수술은 안해도 된다는 보장은 아직 없다. 따라서